



내가 그대들의 방패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13호

2020. 02. 25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전염병 확산 방지는 학·관의 연대책임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시시각각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감염 지역의 추세를 볼 때 우리대학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확진자가 나온 기업들은 즉시 직장을 폐쇄하고 있으며 이미 서울 소재의 대학 행정실과 연구실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나왔다.

우리대학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축하여 유관 부서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였지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대학 캠퍼스가 바이러스 전파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교 혼자만 애쓴다고 넘길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캠퍼스 내 전파와 대학 폐쇄라는 최악의 재난을 막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성동구, 안산시) 그리고 보건당국이 긴밀하고 유효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성동구, 안산시) 그리고 보건당국에 책임 떠넘기기식의 관료 행정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와 함께 강력한 연대책임을 촉구한다.

첫째, 대학은

1. 학생·교원·직원·연구원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체계화된 대응 매뉴얼 작성·시행
2. 블랙보드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3. 교원·직원·연구원의 한시적 자택근무를 유도해 2, 3차 전염 방지
4. 위험지역 출입자 혹은 접촉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 병가 허가
5. 유연 휴가 제도 시행 (연차 이월, 차년도 연차 미리쓰기)
6. 유연 점심시간 제도 시행 (11:00~14:00 내 식당 분산 이용 유도)
7. 중요도 낮은 업무와 회의 폐지를 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인력 확보, 탈진 인력에 대한 재충전 유도
8. '감염병관리위원회' 논의 및 결정 사항을 즉각적으로 학내외에 전파
9. 방역 전문업체 용역 위탁, 불가피하게 내부 인력 투입 시 완벽한 보호장비 지급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성동구, 안산시)와 보건당국은

1. 한양캠퍼스(한양대학교 서울/ERICA, 여자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의료원)에 대학이 필요로 하는 감염예방·방제 전문인력, 관련 장비, 운영 예산을 즉각적으로 투입
2. 마스크, 소독제 등의 품귀 품목을 확보해 대학에 즉시 공여
3. 의심자 및 자발적 검진 요구자에 대한 무조건적, 무비용적 바이러스 검진 검사 제공
4.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원룸촌 등의 인구밀집 지역과 캠퍼스를 잇는 그물망 방역망을 설치해야만 한다.

일부 지자체의 대응을 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닌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 대학을 도와야한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위기는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의 행정권한과 예산은 각 학교에 방역을 미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재난 상황에서 대학을 도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위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와 보건 당국에 대학만큼의 강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